

# 햇빛광양시티투어 야경코스 7월부터 본격 운영

### 광양시, 차량소독·발열체크·마스크 착용 등 방역태세 철저 오후 3시 순천역 출발 7~8월에만 운영...한달간 입장료 50% 할인

광양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을 늦췄던 햇빛광양시티투어를 특별여행주간이 시작되는 7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광양 구석구석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햇빛광양시티투어는 운행 전 차량 소독, 손 소독제 비치, 탑승 전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추고 관광객을 맞는다.  
이번에 운영되는 야경코스는 오후 3시 순천역을 출발해 광양버스

터미널, 중마관광안내소를 거쳐 구봉산전망대, 이순신대교 홍보관(전망대), 이순신대교막거리타운, 해오름유교&무지개다리, 느랭이골 별빛축제 등을 차례로 투어하는 프로그램으로 7~8월에만 운영된다.  
투어 첫 코스인 구봉산전망대는 '2020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명소로 낮에는 광양만, 순천, 여수산단, 남해까지 한눈에 볼 수 있고, 밤에는 신비한

빛을 발하는 봉수대와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찬란한 야경을 즐길 수 있다.  
거북선을 형상화한 이순신대교 홍보관에서는 철로 만든 하프를 불리는 수려한 이순신대교, 광양제철소 광양컨테이너부두, 시가지 등을 한눈에 조망한다.  
해오름유교는 광양의 상징인 태양이 광양만 물결 위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형상으로, 은은하고 감각적인 빛의 선율을 선사하며, 야경

투어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이어 '2017 문체부 전국 야간명소 BEST 30'에 선정된 후식과 치유의 편백나무숲 '느랭이골 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호흡하고 1,430만 개 빛의 향연에 빠진다.  
특별여행주간 기념으로 7월 한달간 입장료를 50% 할인하고, 해설사와 함께하는 퀴즈를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정영미 관광마케팅팀장은 "야경투어는 광양관광을 로컬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에 담은 광양의 빛나는 밤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광양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생활방역 지침을 잘 지키

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으로 특별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햇빛광양시티투어는 평일은 10인 이상, 주말은 5인 이상 예약 시 운행되며, 매주 금요일 16시까지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일반 3천 원, 군인·경로·학생 2천 원, 장애인·미취학아동 1천 원이며, 관광지입장료, 여행자보험, 식비 등은 별도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관광과(☎061-797-3716) 또는 대한여행사(☎061-761-2000)에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고흥군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 개소

도양읍 청년창업몰 내 69.3㎡  
고흥군은 지난 24일 도양읍 청년창업몰(청춘마루) 내 공간을 활용하여 지난해 7월 여성지원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에 이어 두 번째로 육아 돌봄·소통 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 문을 열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상호 돌봄을 독려하기 위한 '열린 공동체 공간'이며 양육활동을 위해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육아 관련 프로그램과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이다.  
금번, 도양공동육아나눔터는 69.3㎡의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 장난감 40세트, 도서 200권, 수유시설 등을 갖췄으며, 영유아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7월부터 자녀 돌봄 품앗이 및 상시 프로그램(주2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여성지원센터 내에 개소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까지 상시프로그램 등 46회(791명) 운영 및 1,678명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후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 확대·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양공동육아나눔터 이용 관련 문의 사항은 고흥군가족센터(061-832-5399), 도양공동육아나눔터(061-830-6881)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 보성군, 전라남도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 1위

### 목표액 대비 203% 징수율 달성... 조세 정의 실현



보성군이 29일 전라남도가 실시한 2019년도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에서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2019년 7억 2천 9백만 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며 목표액 대비 203%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이는 징수 목표액(3억 4천 8백만 원) 보다 3억 8천 1백만 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은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고액체납액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변호관 영지를 통한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에 중점을 두고 징수를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징수 방안을 모색해 완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 "순천 화지마을에 맥가이버가 떴다"

### 어르신 생활불편 해결 만능재주꾼 '제1호' 입주식

순천시 월등면 화지마을에서 최근 농촌마을 어르신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해주는 만능재주꾼 제1호 맥가이버 입주식이 열렸다.  
'맥가이버 정착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청장년들이 시골마을에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의 생활불편을 해결해주며 농어촌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올해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맥가이버 정착지원 사업의 첫 시작점이 되는 제1호 맥가이버는 김현철(49세) 씨로 경기도 용인에서 올해 초 월등면으로 귀촌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날 입주식을 마치고 김현철 화지마을 맥가이버와 함께 마을 최고령 할

머니백을 방문해 디딤목(발판) 설치작업을 함께 하기도 했다.  
순천시는 빈집 리모델링으로 공작소를 구축해 선정된 맥가이버에게 5년간 무상 제공하고 8개월간 정착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월등면 맥가이버 공작소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의 시작점인 만큼 이곳 맥가이버가 화지마을 주민들과 잘 화합해 서로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외곽지역(승주, 주암, 외서, 낙안, 황전)에 대한 맥가이버 청장년을 향후 지속적으로 모집할 계획에 있으며 빈집 발굴에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 '고흥관광 하면 이곳' 고흥 대표 관광지 개발 추진

### 아이디어 공모전 전문가 자문 거쳐 8월까지 후보사업 발굴

고흥군은 고흥관광을 대표하고 대규모 관광객 유인이 가능한 핵심 관광브랜드 개발을 추진한다.  
고흥군은 소록도, 우주센터 등의 명소가 있고, 최근 팔영산 편백숲과 축섬·연흥도 등이 각광받고 있지만 '고흥관광 하면 이곳'이라고 대표할 만한 관광브랜드가 없는 현실이다.  
'고흥 대표 관광지'는 연간 100

만명 이상을 유치하고,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지 않는 대중성이 있으며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자원과 연계되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일정 수준의 관광 인프라와 매력도를 갖춘 곳을 지역 관광거점으로 개발하여 고흥군의 관광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흥군은 전문가 자

문과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8월까지 대표 관광지 개발 후보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 대표 관광지 개발 최종 목표는 관광객과 주민이 모두 행복하고 지속 발전하는 관광도시 고흥을 만드는 것으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

